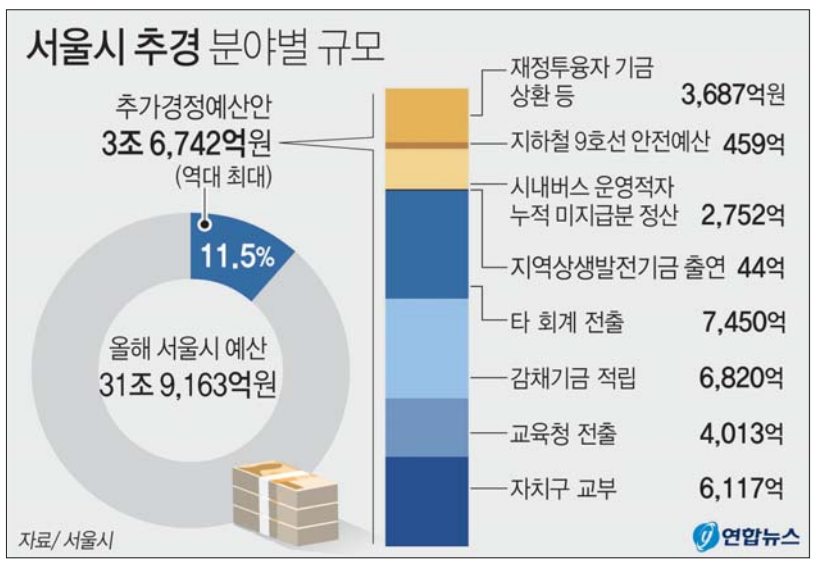
서울시, 추경 3조6742억… 일자리·민생경제 살린다

올 예산 32조의 11.5% '역대최대'

일자리 민생경제에 476억 지원
유급병가 시스템 개발에 1.6억

25개 자치구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직원 채용에 223억 편성



서울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민생경제 살리기, 안전평등 실현 등에 방점을 둔 추가경정예산 약 3조67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6일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틈새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삶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올 한해 서울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순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 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원을 활용한다.

시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민생 경제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시민안전 ▲도시기반 등 5개 분야 262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34개 사업에 476억원 지원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50억원을 편성해 목표 일자리를 기존 4655개에서 5405개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시스템 개발에 1억6000만원, '서울페이' 시스템 구축에 3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 보육을 메꿔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의 신규채용을 위해 2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63개 사업에 1506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192억원을 편성, 부양가족이 있지만 부양의사가 없어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가구에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748억원을 투입,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공급한다. 노후 버스교체에 76억원,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보강에 131억원을 편성했다.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32개 사업에 1005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5000대를 추가 구입해 내년 말까지 3000만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 따릉이 1000대는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구릉지에 보급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시설개선에 18억원,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182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는 322억원을 투자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1개 사업에 1039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시설물 보수와 재해·재난 대비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는 1693억원을 투입한다. 동북간선도로 확장공사,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안양교 확장 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재 연구개발(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 투입해 시민 삶을 바꾸는 정책 확산에 초점을 뒀다"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개 도축 폐수 무단방류 업체 3곳 적발

서울 민사단, 대표 3명 불구속 입건
위반땐 사육·배출시설 폐쇄 명령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개 도축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이들은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에서 개를 구입, 새벽 시간대에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판매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사육장에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 60㎡ 이상인 사육시설은 사전에 신고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 민사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육시설 사용중지 또는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구 중앙시장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전·폐업을 유도해왔다. 이를 통해 8개 업소 중 6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도축을 중단했다. 나머지 업소 2곳은 내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 민사단은 "개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옥상온도 10℃ 낮아지는 '쿨루프' 시공

과가 있는 '쿨루프'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옥상에 햇빛과 열 반사 효

/연합뉴스

서울시, 라오스 댐 피해복구에 5만달러 지원

서울시는 라오스 댐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재해구호기금 5만달러(한화 약 5668만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시장집무실에서 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대사와 만나 지난달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긴급재해구호기금으로 5만 달러를 전달한다. 댐 사고로 현재까지 36명이 사망했고, 9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기금에서 매년 긴급구호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으로 지난해 9월 멕시코 대지진과 2016년 4월 에콰도르 대지진 등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도시를 지원해왔다.

박원순 시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서울 시민의 작은 도움이 라오스에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한강 곳곳서 여름축제 즐기세요"

내일 '서울인기페스티벌' 개최 등
난지공원 등서 총 3개 축제 마련

서울시는 오는 17~19일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축제 3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서울인기페스티벌'은 18일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는 뮤지션과 DJ들의 9시간 연속 릴레이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새소년', '불싸조', '이랑' 등 8팀의 밴드와 'Soi 48', 'Happy Colors Seoul' 등 6명의 DJ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험적 축제인 '한강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은 17~19일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잔디밭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휴대용 수력발전기 100개로 직접 발전한 '그린영화관'에서는 '비포 더 플러드', '플라스틱 차이나', '자전거 vs 자동차' 등 총 3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서울인기페스티벌 모습. /서울시

행사장 한켠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커피와 유기농 나물을 이용한 주먹밥, 식품첨가물로 만든 발포형 천연살균제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서울스토리패션쇼'는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18일 반포한강공원 예빛무대에서 오후 7시부터 운영된다. 전문패션 모델과 시민 모델, 시니어 모델 등 70여명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주민세 균등분 726억 부과
서울시, 이달 말까지 징수

서울시는 이번 달 1일 기준 주민세 균등분 470만건에 대해 72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에는 6000원, 개인사업소에는 6만25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개인 균등분은 1인 가구 증가로 지난해 396만건에서 398만6000건으로 늘어났다. 개인사업소 균등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됐다. 개인 신규사업소 등으로 지난해 41만6000건에서 43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김현정 기자

황학정서 어린이 전통무예 프로그램 진행

종로구, 오늘 '활, 활개치다' 운영

서울 종로구는 17일 황학정 내 국궁전시관에서 어린이 전통무예 체험프로그램인 '활, 활개치다'를 운영한다.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국궁과 택견을 배우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과 활동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활쏘기 문화 강좌 ▲활과 화살촉 만들기 ▲활쏘기 체험 ▲한복 입기 ▲다례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황학정 국궁전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 전통무예 체험 프로그램 '활, 활개치다'. / 종로구청

/김현정 기자